

클릭 한번에 조선시대로 타임슬립!

시간탐험 ‘메타버스 역사교실’ 개관

서울교육청, 역사교육 플랫폼 제공
초5·6학년, 중학생 대상 체험콘텐츠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기반 넓힐 것

교과서를 넘어 메타버스에서 조선의 시간을 탐험하는 ‘온라인 역사교실’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누구나 접속 가능한 온라인 ‘역사교육자료센터’를 29일 오전 10시에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교육연구정보원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웹SE(ZEP)’ 기반으로 제작됐다. 전국 약 8000여 개 학교에서 활용되는 플랫폼으로, 저사양 기기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고 조작이 쉬워 초등학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동일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어 콘텐츠 공유도 용이하다.

주요 대상은 초등 고학년(5·6학년)과



온라인 역사교육자료센터 포스터.

중학생이며, 조선시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 4종이 순차 공개된다. 개관과 함께 공개되는 1차 콘텐츠는 조선 전기 경복궁을 배경으로 세종 시기의 관리 생활과 한글 창제 과정을 다뤘다. 이어 ▲2차(10월 말): 조선 전기 중

로의 백성 생활 ▲3차(11월 말): 조선 후기 경복궁과 개항 이후 주요 사건 ▲4차(12월 말): 조선 후기 종로의 생활 변화를 다룬다. 역사자료를 축적·공유하는 아카이브 공간도 마련된다.

참여자는 가상 공간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적 상황을 체험하고, 사진·영상 등 자료와 연계한 탐구 기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유형 역사교육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참여·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역사에 흥미를 갖고 스스로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함께 활용해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의 기반을 넓혀가겠다. 향후 순차적으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과서 가격 인하... 교육재정 부담 줄인다

교육부, 5개 출판사와 인하 합의
내년부터 39종 평균 4.9% 인하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천재교과서 등 5개 출판사와 합의해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가운데 주문량이 많았던 주요 검정 교과서 39종의 가격을 평균 4.9%(종당 평균 541원)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하 가격은 2026학년도 1학기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하 대상은 2025학년도 신간본으로 공급된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로, 초등 26종·중등 8종·고등 5종이다. 참여 5개사는 2025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시장 점유율 84.7%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이후 출판사 희망가격 중심으로 형성돼

온 가격 구조를 감안해, 과거의 ‘가격조정 명령’ 방식 대신 출판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협의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가격조정 명령은 소송으로 이어져 2019년 행정소송 패소 및 손해배상 발생 등 행정·재정 소모가 컸다. 이번에는 수차례 대면·비대면 협의를 거쳐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인하로 2026학년도부터 시·도교육청 교과용도서 구매 예산이 2025학년도 대비 연간 약 37억원 절감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기간(6년) 동안 최대 222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가격이 책정되는 2026학년도 적용 신간도서도 주문량을 반영해 추가 인하가 가능해, 2027학년도부터 추가 절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하된 가격은 오는 10월 중 관보에 게재돼 공식 확정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판사와 협의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출판사도 이번 합의를 긍정 평가했다. 신광수 미래엔 대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성과”라고 했고, 양태희 비상교육 대표는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협력했다”고 밝혔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학생·학부모·교육청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으며, 이옥상 동아출판 대표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주환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공공재 성격의 교과서는 적정 가격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사당 수압·급수 안정 ‘까치산 배수지’ 설치

서울시, 고지대 급수방식 전환
낮은 수압, 단수 문제 해결 기대

서울 동작구 사당2~5동 일대 고지대의 수도물 수압을 개선하고 단수에 대비하기 위한 ‘까치산 배수지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배수지와 송·배수관 설치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4월 완공할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현재 펌프를 활용한 고지대 급수 방식을 자연 유하 방식(중력에 의해 물을 이동시키는 배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전 등 전력 장애로 인한 급수 중단 위험을 줄이고, 고지대의 낮은 수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까치산 배수지 신설 사업은 서울시

‘2040 서울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점 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까치산 배수지는 해발 85m 지점에 조성된다. 현재 사당동 고지대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배수지가 완공되면 낙차를 활용한 ‘간접급수’ 방식으로 전환돼 수압이 개선되고, 기존 방식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급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추석연휴 서울 학교 주차장 225곳 개방

서울교육청, 안전한 주차환경 마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7일동안 지역주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225곳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교육청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개방 학교 명단과 학교별 개방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문

의는 해당 학교로 직접 하면 된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에 도 개방 정보를 제공하고, 자치구 협조와 경찰서 순찰 강화를 통해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역귀성객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석 기간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장용선 삼육대 명예교수 1000만원 기부

개교 120주년 기념 기부 릴레이
대학 발전·외국인 유학생 지원

장용선 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가 은퇴 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대학 발전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삼육대 개교 120주년 기념 ‘감동 기부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30일 삼육대에 따르면, 2023년 2월 말 정년퇴임한 장 교수는 31년간 삼육대에서 재직하며 삼육의명대 교학처장, 삼육대 인문사회대학장, 국제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국제교육원장 시절에는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

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과 함께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수훈했다.

장 교수는 “학교에 빛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다”며 “삼육대에서 받은 사랑과 배려가 제 인생을 지탱해 준 큰 힘이였다. 작은 정성이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장 교수의 가족은 오래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에 거주해 왔다. 그는 기부를 마친 직후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현진 기자

시흥시 서울대병원 착공... 2029년 개원

800병상 규모 미래형 병원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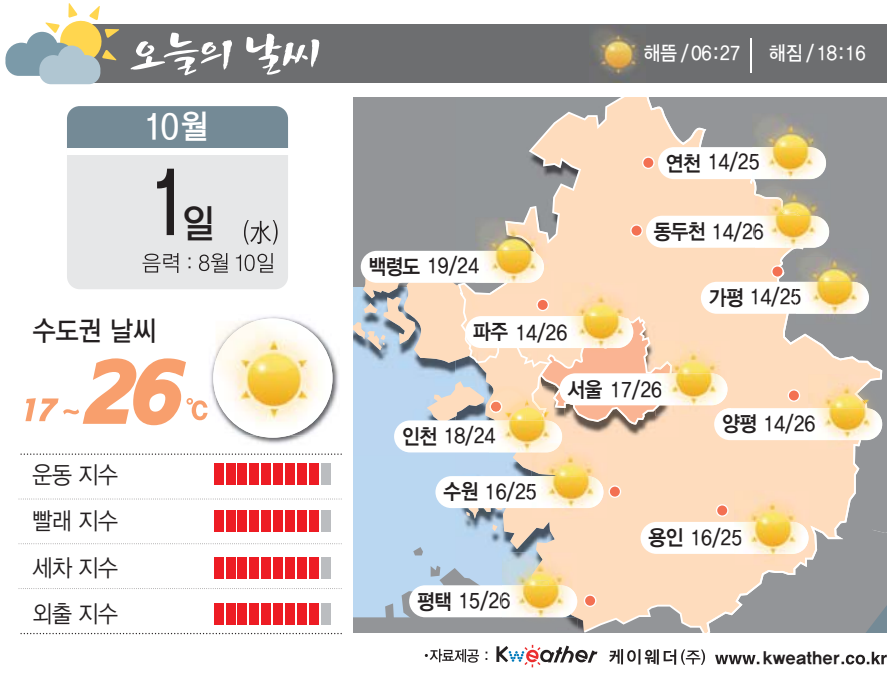
시흥시는 29일 오후 3시 시흥 배곧동 서울대병원 건립부지에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병원 건립 사업을 공식화했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 8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병원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정식 국회의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시·도의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경기 서남부 지역 유일의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건립된다. 총 67,50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서며, 800병상을 갖추고 27개 진료과와 암·모아·심뇌혈관 등 6개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원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원이 완공되면 그동안 지역 내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필수의료 수요가 해소되고, 생활권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푸틴, 가을 징집령 서명... “12월까지 13만5000명 징집”
▲9월 중국 제조업 PMI 49.8·0.4P ↑...내수 부족에 6개월째 경기축소 /사진 뉴시스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 획기적 ‘AI 안전법’ 최종 서명
▲北외무성 부상, 유엔 연설...“비핵화 불가 절대 철회없어”

▲아랍·이슬람 8개국, 트럼프 가자 종전안 환영...“진심 어린 노력”
▲美하원통과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現 규모유지’ 명시